

#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金尙源\*\*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글
  - II. ‘국어로마자’ 방안과 어문개혁
    - 1. 《國語月刊》·《漢字改革號》와 국어로마자 방안
    - 2. 국어로마자 방안의 구성과 특징
    - 3. 국어로마자 방안의 주요 쟁점
  - III. 나오는 글
- 

## I. 들어가는 글

‘國語羅馬字’<sup>1)</sup> 방안은 기존의 문자체계인 한자를 의식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 제작된 한어표음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로마자모 방안으로서는 최초로 정부의 추인을 거쳐 국어자모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국어로마자’ 방안의 등장은 5·4 신문화운동의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신문화운동 과정에서 기존의 어문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논의 결과가 국어로마자 방안의 탄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5·4 신문화운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와 문화에 대규모 변혁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사고와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언어관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2)</sup>

---

\* 본 논문은 2011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1) ‘國語羅馬字’의 정식 명칭은 ‘國語羅馬字拼音法式(국어로마자표음 표준양식)’이다.

2) 拙稿, 〈文體의 改革과 新文化運動〉, 《中國文學研究》 第31輯, 韓國中文學會, 2005.12. 153~154쪽 참조.

그리고 이는 서사어를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전환시키려는 문체변혁운동인 5·4 백화문운동을 탄생시켰다. 1920년대 초반 백화문은 어느 정도 국어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정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과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5·4 백화문운동은 만칭 이래의 추진되어 온 국어운동과 결합하여 한자를 표음문자로 대체하려는 문자개혁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국어 로마자 방안이었다.

한편 5·4 신문화운동을 전후하여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천하’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체계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 이에 일부 신문화운동 진영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ESPERANTO’ 채용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어와의 결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종래의 한자개량론이나 표음자모 창안론을 뛰어넘어 한자와 한문, 그리고 한어 전반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어문체계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sup>3)</sup> 당시 신문화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세계정세나 문명과 언어의 관계, 한자의 문제점, 에스페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에스페란토의 실행 시기와 속도, 적용 범위, 구체적인 방법론 등과 같은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sup>4)</sup> 먼저 1918년 錢玄同은 《新青年》 제4권 제4호의 통신란에 발표한 〈中國今後之文字問題〉에서 중국이 망하지 않고 문명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문을 폐지하고 에스페란토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에스페란토 채용론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중국민족이 20세기 문명의 민족이 되려면 반드시 유가와 도교를 타파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삼아야 하며, 유가의 학설과 도교의 황당한 말들을 기록한 한문을 폐지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문을 폐지한 후에 어떤 문자로 대체해야 하는가? 나는 문법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발음이 정돈되고 가지런하며, 어근이 정교하고 훌륭한 인위적인 문자인 ESPERANTO를 채용해야

3) 拙稿, 〈신문화운동시기 ‘Esperanto’ 관련 논쟁 양상 분석〉, 《中國語文學論集》 제55호, 中國語文學研究會, 2009.4. 304쪽 참조.

4) 拙稿, 〈錢玄同의 ‘Esperanto’ 채용론〉, 《中語中文學》 제43집,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408~409쪽 참조.

한다고 생각한다.<sup>5)</sup>

이에 대해 陳獨秀는 같은 호에서 한자를 폐기하고 에스페란토로 대체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만 한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먼저 한자를 폐기하고 한어는 로마자모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sup>6)</sup> 胡適도 같은 호에서 앞으로 표음문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문장에는 단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문언을 백화로 대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백화를 표음문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sup> 한편 1908년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에스페란토’ 소개와 전파에 앞장섰던 吳稚暉는 1918년 10월 《新青年》 제5권 제5호에 발표한 〈補救中國文字之方法若何〉에서 한자와 한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그것들을 폐기하고 에스페란토로 대체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한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자와 한문을 존치시키면서 注音字母로 그것을 보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sup>8)</sup> 이에 대해 傅斯年은 1919년 《新潮》 제1권 제3기에 발표한 〈漢語改用拼音文字的初步談〉에서 한자는 표음문자로 개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으며, 한어도 표음문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표음문자의 자모는 로마자모를 사용하고, 자음은 ‘藍靑官話’<sup>9)</sup>를 따르고, 어휘구조는 단어를 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sup> 이러한 일련의 토론 과정에서 錢玄同은 ‘에스페란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자와 한어는 당분간 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음자모나 로마자모 표음방안으로 기존의 어문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도적인 방안이 필요하

5) 錢玄同, 〈中國今後之文字問題〉, 《錢玄同文集》第一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166~167쪽.

6) 陳獨秀, 《新青年》第4卷 第4號(影印本), 〈通信〉, 上海書店, 1988, 356쪽 참조.

7) 胡適, 《新青年》第4卷 第4號(影印本), 357쪽 참조.

8) 吳稚暉, 〈補救中國文字之方法若何〉, 《新青年》第5卷 第5號(影印本), 492쪽 참조.

9) 官話라는 명칭은 만청 관리(mandarins)들이 관청에서 공무를 보면서 사용하던 언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官話는 본래 북방 지역의 방언이었지만 元代 이래 북방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전국에서 통용되는 ‘초방언적 공동언어(lingua franca)’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官話에는 엄격한 어음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방언의 어음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를 ‘藍靑官話’라고 불렀다.

10) 傅斯年, 〈漢語改用拼音文字的初步談〉, 《新潮》第1卷 第3期(影印本), 上海書店, 1986년, 186~188쪽 참조.

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sup>11)</sup> 이처럼 국어로마자 방안은 '5·4' 신문화운동 시기 백화문운동과 '에스페란토' 채용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한자개혁론과 보편적 문자관의 영향 속에서 기존의 한자를 대체하고, 한어를 표기할 로마자모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한자가 결여하고 있는 '소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폐기하고 보다 보편적인 문자체계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sup>12)</sup> 그리고 이후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에서 한어표음방안의 주류가 주음자모와 같은 한자필획식이 아니라 로마자모 식으로 전환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어로마자 방안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의 문장과 국어로마자 방안의 구성,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쟁점 분석 등을 통해 그것이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 과정에서 갖는 한어사적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어로마자 방안과 어문개혁

### 1. 《國語月刊》·《漢字改革號》와 국어로마자 방안

'5·4' 신문화운동 시기 어문개혁론자들은 한편으로는 백화문을 제창하고, 한편으로는 한자를 개혁하고 표음방안을 채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新青年》에서 시작하여 《新潮》와 《國語月刊》으로 이어진 일련의 토론은 '국어운동'의 구호 아래 주음자모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주는 동시에 국어로마자 방안의 탄생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1923년 《國語月刊》 1권 7期の 《漢字改革號》 출판은 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어문개혁 논의에 대한 총결산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는 국어로마자 방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뿐만 아니라 향후의 어문개혁운동 과정에서 한어표음방안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5·4' 신문화운동이 고조기를 향해 가던 1918년 근대 중국 어문개혁운동은 매

11) 〈錢玄同의 'Esperanto' 채용론〉, 408~409쪽 참조.

12) 拙稿, 〈한자의 변천과 '소리'의 재발견〉, 《中國語文學論集》 제46호, 中國語文學研究會, 2007.10. 396쪽.

우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은 바로 1913년 독음통일회 당시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던 記音 부호를 개선한 ‘注音符母’가 공식적인 ‘國音字母’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한어의 어음체계를 분석 정리하고, 한자가 결여하고 있는 ‘소리’ 체계를 보완하고, 한자의 독음 표준을 바로잡아 ‘국어’의 기틀을 확립한 최초의 공적인 방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어음체계나 표음부호, 독음 표준 등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표음문자 체계로 대체하려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자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극히 과도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것의 역사적 의의와 공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개혁을 둘러싼 토론과 대체문자 방안 모색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토론과 모색의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국어로마자 방안이었다. 그것은 근대적 언어관에 부합하는 ‘국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개혁과 표음문자의 창안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종래와 같은 한자의 자형 변화나 표음성 강화가 아니라 문자구성 방식과 표음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한자와 표음부호를 하나의 문자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문자 체계는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국어로마자’ 방안 추진자들은 ‘切音字’ 방안과 ‘注音符母’ 방안<sup>13)</sup>이 정식 ‘문자’가 아니라 ‘注音’ 도구에 머물렀던 한계를 돌파하여, 한자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어표음문자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가 한자를 대체할 정식 ‘문자’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규범들을 체계화하는 많은 공을 들였다.

국어로마자 방안 추진자들은 1923년 《國語月刊》·《漢字改革號》를 통해 자신들의 구상을 담은 문장들을 집단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한자개혁과 로마자모 채용을 둘러싼 논의를 고조시키는 한편 국어로마자 방안을 지지하는 새로운 어문개혁 진영

13) ‘切音字’ 방안과 ‘注音符母’ 방안은 한자의 어음표시 기능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음부호 체계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문자개혁운동의 발전 단계로 보면 두 방안의 추진 형태와 목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즉 ‘切音字’ 방안이 각 지역의 방언 혹은 관화의 음을 표음하고 한자를 보다 쉽게 가르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면, ‘注音符母’ 방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國音을 통일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체계적인 국음통일방안이었다.

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어월간》의 《한자개혁호》에는 胡適의 卷頭言을 비롯해 錢玄同의 〈漢字革命〉, 黎錦熙의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趙元任의 《國語羅馬字的研究》, 蔡元培의 《漢字改革說》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sup>14)</sup> 이 문장들은 국어로마자 방안 추진자들의 문제의식과 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錢玄同은 〈漢字革命〉에서 한자혁명이 필요한 이유, 한자의 변천과정에 나타나는 표음화 추세와 가차자 현황, 한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로마자모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국제음표에 대한 입장, 한자혁명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매우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는 한자가 배우기도 사용하기에도 불편하여 교육의 보급과 국어의 통일, 서구 학술용어의 수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자를 혁명하지 않으면 결코 교육을 보급시킬 수 없고, 국어를 통일시킬 수 없으며, 국어의 문학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이치와 학문, 지식 등을 국어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써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한자가 알아보고 기억하고 쓰기에 어렵기 때문이며, 경직되어 생기가 없는 한자는 생기발랄한 국어를 표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며, 한자는 음표를 표시하기에 편리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며, 한자를 줄기로 삼으면 새로운 학문과 이치를 담고 있는 원어를 국어에 수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sup>15)</sup>

14) 《漢字改革號》에는 胡適의 〈卷頭言〉, 錢玄同의 〈漢字革命〉, 黎錦熙의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蔡元培의 《漢字改革說》, 周作人的 〈漢字改革的我見〉, 沈兼士의 〈國語問題之歷史的研究〉, 趙元任의 《國語羅馬字的研究》, 錢玄同의 〈國語字母二種〉, 卍 // 弓의 〈對於簡筆字之我見〉, 何仲英의 〈漢字改革的歷史觀〉, 後覺의 〈漢字改革的幾個前提〉, 遇公의 〈日本人和漢字改革〉, 陸衣言의 〈漢字訴冤〉, 그리고 周起鵬의 〈漢字改革問題之研究〉, 正厂的 〈過渡時期中的漢字〉와 〈做了‘過渡時期中的漢字’以後〉, 姜超我的 〈我對於國音字母獨立使用的一點意見〉, 郁敬之의 〈小學生有兼習拼音文的必要〉, 田錫安의 〈漢字改造中詞典編輯法的幾個提議〉 등 6편의 독자 의견과 이에 대한 樂嗣炳의 〈讀了‘讀者意見六篇’之後〉, 黎錦暉의 〈廢除漢字採用新拼音文字案〉, 錢玄同의 〈減省現行漢字的筆劃案〉, 趙元任과 黎錦熙이 國音字母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두 통의 편지, 胡國光的 〈參觀了國語專修學校之後〉, 傅斯年的 〈漢語改用拼音文字的初步談〉 등 여러 편의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국어로마자 방안의 창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錢玄同, 黎錦熙, 趙元任의 대표적인 문장 3편과 이 방안을 공포한 蔡元培의 문장만을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5) 錢玄同, 〈漢字革命〉, 《錢玄同文集》第三卷, 62쪽.

그리고 ‘주음자모’가 한자의 필획을 개혁해서 만든 표음방안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세계문화와는 격이 맞지 않고 20세기 과학문명의 성과인 전보나 타자기 등에 적용하기에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모를 표음자모로 채용함으로써 한자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sup>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층 더 높은 단계에서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인가?’ 그것은 한자를 표음자모로 고쳐 쓰는 것으로 현재의 주음자모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인가?’ 그것은 세계적인 자모인 로마자모식 자모를 표음자모로 채택하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전현동의 주장은 한자개혁의 기본 취지를 확고히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로마자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어 내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黎錦熙의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는 자신의 한자혁명론을 피력하고 있는 ‘개론’ 부분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복음단어 구성표 설명서’, ‘자수와 어휘수의 통계 연구’, ‘단어 이어쓰기 조례’, ‘신문자 글자체 사례’ 등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개론’ 부분에서 먼저 錢玄同이 제기한 ‘한자혁명’ 구호에 동감을 표시하는 한편 한자혁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어 이어쓰기(詞類連書)’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래의 각종 한자개혁과 표음문자 방안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그것들이 단지 漢‘字’ 하나하나의 표음을 독립시킨 것이지, 결코 漢‘語’를 표시하는 표음문자가 아니었다.”<sup>18)</sup>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문자라는 것은 순수하게 언어와 일치할 수도 없지만, 언어에서 분석해낸

16) 拙稿, 〈錢玄同의 한자폐지론과 ‘국어로마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35輯, 韓國中文學會, 2007. 12. 175쪽 참조.

17) 〈漢字革命〉, 76쪽.

18) 黎錦熙,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黎錦熙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2004. 30쪽.

각각의 음절을 문자로 간주할 수도 없다. 문자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심리상의 각종 정서(意象)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언어 중의 음절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발음학에서 어떤 어음을 고찰하는 일종의 추상적인 부호라고 할 수 있을 뿐 결코 언어학에서 어떤 언어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문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심리적인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억지로 간단하게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문학'을 표현하고 '문화'를 불어넣는 도구가 될 수 없다.<sup>19)</sup>

그는 한어가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어, 최소한 쌍음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굳이 무궁한 형태로 유한한 단음절을 표기해온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언어와 문자는 서로 일치할 수 없었으며, 이처럼 한자가 한어를 온전하게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의 구어문학과 사대부의 문언문학이 괴리될 수밖에 없었으며, 한자가 어음의 규범을 제시하는 문자로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구어들이 크게 분열되어 무수한 방언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대부와 민중들은 서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어 통일'과 '문학혁명'이 제기되고, '표음문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자의 오랜 영향 때문에 그것을 표음문자로 바꾸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단음절 표기법, 다시 말해 '한어의 단어음'이 아니라 '한자의 자음'을 표기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음문자 시도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의 수많은 한자의 모습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로지 현대 한어를 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표음부호를 채용하여 표기해야 한다."<sup>20)</sup>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는 그동안의 한자개혁 방안들이 표음부호와 문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한자개혁이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리'뿐만 아니라 '의미'도 담아낼 수 있는 완전한 문자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 이어쓰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sup>21)</sup>

19)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31쪽.

20)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34쪽.

한편 그는 ‘복음단어 구성표 설명서’, ‘자수와 어휘수의 통계 연구’, ‘단어 이어쓰기 조례’, ‘신문자 글자체 사례’ 등을 통해 ‘단어 이어쓰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어 이어쓰기’ 규칙을 자신의 표음문자 글쓰기에 직접 적용한 문장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어 이어쓰기’ 문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趙元任의 〈國語羅馬字的研究〉는 ‘로마자에 반대하는 열 가지 주요 의문’, ‘국어 로마자 초고’, ‘국어로마자 방안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원칙’, ‘국어로마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한 의문집’, ‘국어로마자 추진 방법’ 등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로마자에 반대하는 열 가지 주요 의문’에서는 “언어문자는 함부로 개혁할 수 없다.” “문자는 형태를 중시한다.” “한어에는 동음자가 많다.” “로마자로는 문언을 쓸 수 없다.” “문자는 통일되어 있지만 언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자모로 표기할 수 없다.” “외국문자로는 중국음을 표기할 수 없다.” “중국의 문장에 서양의 문자가 침투할 위험이 있다.” “로마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가 지나치게 길다.” “로마자는 한자만큼 인식하기 편하지 않다.” “로마자 방안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등 로마자모 방안을 둘러싸고 자주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22)</sup> 그는 이러한 의문들이 모두 로마자모 방안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았다.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일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의론자나 반대론자들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답식 구성으로 국어로마자 방안의 기본 사상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지지자들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어로마자 방안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관련 연구 조적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실제로 이는 1923년 ‘국어로마자 표음법 연구위원회’의 결성과 체계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국어로마자 초고’에서는 고안한 聲母, 韻母, 聲調 표기법, 자모의 명칭, 국어로

21)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32~34쪽 참조.

22) 趙元任, 〈國語羅馬字的研究〉, 《趙元任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2004. 37~57쪽 참조.

마자로 작성한 문장 사례와 방언 로마자모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로마자 방안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원칙’에서는 모두 25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영구적인 사용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한다.”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 추세에 순응해야 한다.” “언어학자의 편리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26개 로마자모만 사용하고, 새로운 자모를 만들지 않는다.”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습관에 따른다.” “접두사는 이어 쓴다.” “성조를 자모로 표기하고 字形의 일부로 간주한다.” 등의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국어로마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한 의문점’에서는 자모의 용법과 표음법, 표음법의 표준, 대문자 표기, 외성어 표음법, 서양어 표음법 등에 관한 미결 과제들과 자신의 잠정적인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의 자모 방안과 제작 원칙, 대안들은 1928년에 정식 공포된 ‘국어로마자표음 표준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音理 분석, 표음방법, 기술처리 등에 관한 견해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어로마자 제정에 필요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닦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절음자운동과 주음자모운동 시기의 그 어떠한 로마자모식 방안들보다도 완전한 체계를 갖추어으로써 향후 중국의 한어표음방안 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국어로마자 추진 방법’에서는 먼저 ‘국어로마자 위원회’를 결성하여 앞의 25개 원칙에 따라 시행안을 만들고, 관련 자전과 교과서, 잡지들을 발간하고, 중국 고전문학을 국어로마자로 번역하고, 외국인에게 국어로마자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외국인이 만든 표기법에 따라 외교부와 우정국, 전보, 철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명과 지명의 표음표기를 폐기하고 국어로마자로 대체할 것 등을 제안했다.<sup>23)</sup>

이밖에도 蔡元培는 〈漢字改革說〉을 통해 한자를 개혁하려면 직접 로마자모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자는 배우기도, 사용하기기도, 타자기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표음자모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음자모는 아름답지도 않고, 서양의 어휘와 함께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지만, 로마자모는 서양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어용 타자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형성자의 聲部를 聲母로 삼아 모든 합체자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sup>24)</sup> 이는 표음문자가 만들어지더라도 역사적인 문헌을

23) 〈國語羅馬字的研究〉, 57~89쪽 참조.

24) 蔡元培, 〈漢字改革說〉, 中國蔡元培研究會編, 《蔡元培全集·第4卷》, 浙江教育出版社

익히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거나 한자 학습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채원배의 주장은 동시대 한자개혁론자들의 견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당시 그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자개혁과 국어 로마자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이다.

## 2. 국어 로마자 방안의 구성과 특징

### 1) 국어 로마자 방안의 구성

국어 로마자 방안은 1923년 ‘국어 로마자 표음법 연구위원회’의 설치와 1926년 〈국어 로마자 표음 표준양식〉 초안 확정을 거쳐 1928년 9월 ‘國音字母 第二式’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공포되었다.<sup>25)</sup> 1928년 정식 공포된 국어 로마자 방안은 聲母, 韻母, 聲調, 附記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6)</sup>

社, 1997. 718~721쪽 참조.

- 25) 국어 로마자 방안의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國語統一籌備會’는 1923년에 개최된 제5차 대회에서 錢玄同 등 한자폐지론자들의 제안에 따라 ‘국어 로마자 표음법 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錢玄同, 黎錦熙를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고 시국이 불안정해서 전체회의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1924년 劉復이 錢玄同·趙元任·黎錦熙·林語堂·汪怡 등 북경에 거주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數人會’를 별도로 조직하여 국어 로마자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은 1925년 9월부터 모두 22차례의 연구 토론과 아홉 번의 원고 수정 끝에 〈국어 로마자 표음 표준양식〉 초안을 확정짓고, 1926년 9월 ‘국어 로마자 표음법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정식 공포를 요청했다. 하지만 즉각 공포되지 않자 우선 1926년 11월 ‘국어 통일 준비회’의 명의로 주음자모와 함께 국음자모로 사용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어 로마자로 쓴 출판물, 예컨대 黎錦熙의 《國語模範讀本》, 趙元任의 《最後五分鐘》 등을 발표하고, 1927년 2월에 《新生週刊》은 국어 로마자 특집호를 발간했다. 약 2년 후인 1928년 9월 蔡元培가 대학원(교육부) 원장이 되면서 대학원령으로 이 방안을 ‘國音字母 第二式’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공포하였다. 이로써 국어 로마자 방안은 1918년에 공포된 ‘注音字母’와 함께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공식자모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高天如, 《中國現代語言計劃的理論和實踐》, 復旦大學出版社, 1993, 148쪽 참조.
- 26) 이하 국어 로마자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黎錦熙의 《國語運動史綱》(商務印書館, 1934) 175~179쪽과 趙元任, 《趙元任語言學論文集》 463~465쪽에 수록된 〈國語羅馬字拼音法式〉을 참조한 것이다.



번째 자모 앞에 y나 w를 붙여야 했다. 예를 들어 -eu, -uh는 단독으로 쓸 때 yeu(雨), wuh(霧)로 써야지 yu나 wh로 쓰면 안 되었다. 한편 주음자모에서는 ‘知, 痴, 詩, 日, 茲, 此, 四’ 등의 자에 운모를 배치하지 않았지만 국어 로마자 방안에서는 y로 표기했다. 이밖에 ‘東, 送’과 ‘翁, 瓮’ 등은 운이 다르기 때문에 ㄨㄥ을 開口呼 ong와 合口呼 ueng 두 운으로 구분했으며, ㄨㄥ은 齊齒呼에 가까우므로 iong로 표기했다.

(3) 聲調

국어 로마자 방안은 성조를 한어표음문자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별도의 부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모를 첨가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냈다.

陰平 (1성)	① 기본 형식을 사용한다. 예) hua(花), shan(山). 여기에는 경성, 의성어, 조사 등도 해당된다. 예) ma(嗎), aia(阿呀) ② 단 성모가 m, n, l, r인 것에는 h를 붙인다. 예) mhau(猫), lha(拉)
陽平 (2성)	① 開口韻(ㄨㄥ-ong韻 포함)은 원음 뒤에 r을 붙인다. 예) char(茶), torng(同), parng(旁) ② 운모의 첫 번째 자모가 i, u인 것은 y, w로 고친다. 예) chyn(琴), hwang(黃), yuan(元). 단 i, u 두 자모가 전부일 경우에는 yi, wu로 고쳐 쓴다. 예) pyi(皮), hwu(胡), wu(吳) ③ 성모가 m, n, l, r인 것은 기본 형식을 사용한다. 예) ren(人), min(民), lian(連)
上聲 (3성)	① 단원음은 중복해서 쓴다. 예) chii(起), faan(反), eel(耳) ② 복원모의 처음이나 마지막 자모가 i, u인 것은 e, o로 고쳐 쓴다. 예) jea(假), goan(管), sheu(許), hae(海), hao(好). 단 이미 앞의 자모를 바꿔 쓴 것은 끝 자모를 바꾸지 않는다. 예) neau(鳥), goai(拐) ③ ei, ou, ie, uo 네 운은 ①번 조항에 따른다. 예) meei(美), koou(口), jiee(解), guoo(果)
去聲 (4성)	운미가 -i, -u, -n, -ng, -이거나 없는 것은 각각 -y, -w, -nn, -nq, -ll 또는 -h로 고쳐 쓴다. 예) tzay(在), yaw(要), bann(半), jenq(正), ell(二), chih(器)

(4) 附記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방언 표기 부칙과 v, x 자모를 사용한 축약 표기법, ‘兒化韻’ 표기법, 각 자모의 한어 음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① 관화구역에서는 장강 하류 지역에서만 입성(入聲)을 사용한다. 입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tieq(鐵), loq(洛)처럼 q를 운미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로마자모 v, x는 국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v, x 두 자모

를 이용하여 ‘중첩되는 글자’를 대체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ianpian(偏偏)처럼 같은 글자 두 개로 된 단어는 뒤의 글자를 x로 대체하여 pianx로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kann i kann(看一看)처럼 한 글자 건너 중복되는 글자는 뒤의 글자를 v로 대체하여 kann i v로 표기할 수 있다. 또 feyshin feyshin(費心費心)처럼 두 글자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뒤의 두 글자를 vx로 대체하여 feyshin vx로 표기할 수 있다.

③ 남경, 항주, 북경 등의 도시에서는 ‘兒’化韻을 많이 사용한다. 국음도 ‘兒’化韻을 채용할 수 있으며, 표음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운미가 i, n인 경우에는 그것을 생략하고 ~l을 붙여 쓴다. 예를 들어 hair-erl(孩兒)은 harl, shann-erl(衫兒)은 shall, wey-erl(味兒)은 well로 쓴다. 다음으로 y, i, iu 세 운에는 ~el을 붙여 쓴다. 예를 들어 sy-erl(絲兒)은 sel, jin-erl(今兒)은 jiel, yu-erl(魚兒)은 yuel로 쓴다. 그리고 나머지는 ~l을 붙여 쓴다. ming-erl(明兒)은 mingl, how-erl(后兒)은 howl로 쓴다.

④ 국어 로마자 원칙에 근거하여 각지의 방음을 표기할 수 있다. 江蘇와 浙江에서는 bh, dh, gh, dj, dz 등의濁母를 사용하므로 bhu(蒲), dji(其), dzy(慈)처럼 표기할 수 있다. 西安에는 bf, pf 등의聲母를 사용하므로 bfang(庄), pfu(初)처럼 표기할 수 있다. 廣州에는 m, p, t, k 등의韻尾를 사용하므로 sam(三), lap(立), tzit(節), hork(學)처럼 표기할 수 있다.

⑤ 알파벳순으로 자모 명칭을 읽을 때는 국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ㄚ	ㄅ	ㄇ	ㄉ	ㄜ	ㄈ	ㄍ	ㄏ	ㅣ	ㄐ	ㄎ	ㄌ	ㄇ
n	o	p	q	r	s	t	u	v	w	x	y	z
ㄋ	ㅊ	ㄆ	ㄑ	ㄹ	ㅅ	ㄷ	ㅂ	ㅍ	ㅍ	ㅍ	ㅣ	ㅈ

## 2) 국어 로마자 방안의 특징

국어 로마자 방안은 한어의 ‘문자’ 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한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로마자모를 채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26개 로마자모만 사용하고 별도의 새로운 자모를 만들거나 부호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로마자모를 ‘표음부호’가 아니라 ‘순수한 문자’로 간주하고, 그것을 독자적인 문자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한편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로마자모를 채용한 것은 중국적 특수성보다

는 세계적 보편성을 더욱 중시하는 5·4 신문화운동 이후 중국의 문화조류를 의식적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또한 보편적 문자체계로 서구 근대문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서구 근대문명과 효율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개방적 문화의식을 구현한 것이었다. 이는 향후 한어표음방안의 자모 형태의 주류가 한자필획식에서 로마자모식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어의 어음을 ‘音素拼音制’에 입각하여 표기하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서구 언어와의 접촉 과정에서 언어와 문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문자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문자는 ‘소리’를 시각화하는 부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한어의 어음을 세밀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자모 표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바로 이러한 문자와 언어, 음소계 표음문자에 대한 새로운 자각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國音字母’ 第一式인 주음자모는 “비록 국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39개의 자모는 국음에 포함된 ‘음소’를 하나하나 독립된 자모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또한 국음이 필요로 하는 성모와 운모를 하나하나 개별적인 자모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sup>28)</sup> 예를 들어 주음자모는 ㄉ, ㄊ, ㄋ, ㄌ, ㄍ, ㄎ, ㄗ, ㄘ 8개의 운모를 음소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모와 어음 관계 및 음절 표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해 국어로마자 방안에서는 이 운모들을 “모두 단원음 자모의 복합이나 단원음 자모에 介音, 鼻輔音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표기했다.(ai, uei, ong 등)”<sup>29)</sup> 그리고 “음절을 분명히 하기 위해 聲과 韻에 檢용되는 介母 |, ㄨ, ㄩ를 y, w, y(u)와 i, u, iu로 구분해서 표기하고, 전자를 성모로 후자를 운모로 삼았으며, 자모표에서도 성과 운으로 구분해서 배열했다.”<sup>30)</sup> 이는 한어의 어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한어의 음리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성조를 한어표음문자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의 부호가 아니라 표음표기법의 변환, 즉 특정 자모를 첨가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성조를 陰平(1성), 陽平(2성), 上聲(3성), 去聲(4성) 네 종류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성조표기 규정을 갖추고 있

28) 錢玄同, 〈注音字母與現代國音〉, 《錢玄同文集》第三卷, 21쪽.

29) 《中國現代語言計劃的理論和實踐》, 152쪽.

30) 《中國現代語言計劃的理論和實踐》, 152쪽.

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이 성조를 직접 서사체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어의 특성상 기존의 어휘와 문장체계를 그대로 표음 문자로 전환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체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성조를 동일 계열의 자모로 표기함으로써 주음자모의 四角點聲法(1918)이나 부호표기법(1922)에서 나타난 서사상의 불편함이나 외관상의 난삽함을 제거하고 서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어 로마자 방안은 한어의 특성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사체계를 목표로 고안된 것이었다.

넷째, 맞춤법(正字法) 규칙, 특히 어휘별 이어쓰기에 관한 규칙 확립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문장의 띄어쓰기 규칙을 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러한 어휘별 이어쓰기와 문장 띄어쓰기 규칙은 해당 어휘의 의미와 어법적 표지를 문장의 어휘 배열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표음자모로 표기된 어휘와 문장의 해독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어휘 배열 구조의 시각화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국어 로마자 방안이 애초 한자의 독음부호가 아니라 한자를 대체할 '표음문자'로 고안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 로마자 방안이 종래의 한어표음방안들이 '한자의 자음'을 기계적으로 표기하는 데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문자체계를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현대 북경의 어음계통에 기초한 표음방안이었다. '국음자모 제1식'인 '주음자모' 방안은 한어의 역사음위와 방언음위가 뒤섞인 종합음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그것은 옛 독서음과 관화음, 남방음과 북방음이 혼합된 일종의 '인공적인 국음'이었다. 이처럼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언어'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준음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보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음계통이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어'를 지향하고 공식적으로 '국음자모'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독음 표준이나 통일 언어를 보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국음자모 제2식'인 국어 로마자 방안은 극히 일부 제한된 용도의 濁聲母를 제외하고는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이라는 '단일 음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근대 '국어'가 요구하는 어음의 표준성과 통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북경어 '단일 음계'에 기초한 한어표음방안의 창안은 이후 '京音京調'에 근거한 국음 표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여섯째, 근대 과학기술의 성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로마자 모를 채용하고 음소표음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완벽한 표음기능뿐만 아니라 근대 과학기술에 응용하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만청 절음자운동 시기 어문개혁 운동의 주안점은 교육구국에 있었다. 따라서 자모의 편리성과 어음의 통일을 최우선시 했다. 하지만 5·4 신문화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고 근대 과학기술문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어문관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전보나 타자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기기의 전파는 기존의 어문체계에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했다. 이에 자모의 편리성과 어음의 통일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편성과 활용성까지 중시하기 시작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이러한 자모의 보편성과 응용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한자가 갖고 있던 과학적·기술적 응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일곱째, 언어개혁과 문화변혁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이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전통문화를 철저히 개혁하고 새로운 근대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상의 凝結體이자 媒介體인 한자와 고문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5·4 신문화운동 시기의 반전통·반유가 사상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어로마자 방안은 단순히 문자개혁에서 그치지 않고 한자와 중국문화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한자의 개혁을 통해 중국문화의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문화변혁의 의도를 담고 있었다.

### 3. 국어로마자 방안의 주요 쟁점

#### 1) 성조표기법을 둘러싼 논란

국어로마자 방안이 나온 후 그것의 체제와 역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성조 표기법이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법은 한어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성조를 서사체계 안에 직접 구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이어쓰기에 편리하고 외관상으로도 정돈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규칙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서사어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어로마자 방안의 보급과 활용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성조 표기의 필요성 여부부터 해당 규칙의 난이도와 합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차에 걸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성조는 한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한어를 표음으로 표기하고자 할 때는 성조의 표기법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자의 성운과 마찬가지로 성조도 지방마다 적지 않은 편차를 가지고 있었다. 1913년 독음통일회에서 국음을 확정할 때 각 성조의 표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성은 역대로 한자를 읽을 때의 음조였지 말할 때의 음조가 아니었다. 실제로 구어에서는 다음절어의 경우에만 성조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지켰을 뿐 다음절어의 경우에는 성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특히 근대 이후에 와서는 다음절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개별 한자의 성조가 갖는 의미상의 변별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 한자들이 다른 글자와 함께 하나의 단어를 구성할 경우 원래의 성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조의 표준 자체도 모호해졌다. 각종 성조의 상호변화(‘一’과 ‘不’의 사례)와 경성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이었다.<sup>31)</sup>

성조 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그것이 없을 경우 수많은 동음이의자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한어의 실제 구두음을 자모로 표기한 것이라면 상당수의 동음이의자는 문장 속에서 의미의 변별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조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문장과 어휘 구조를 문언체에서 백화체, 그리고 다음절어에서 다음절어 위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로마자 방안이 모든 단어와 음절마다 성조를 표기하는 규칙을 고수한 것은 여전히 말이 아니라 문자를, 어음이 아니라 독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자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것은 한자를 대체할 한어표음문자 체계를 지향한다면 여전히 ‘어음’

31) 瞿秋白, 〈羅馬字的中國文還是肉麻字中國文?〉,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225~226쪽 참조.

과 ‘청각’이 아니라 ‘부호’와 ‘시각’을 통해 문자의 의미에 변별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그것은 애초 서사어에 기반을 둔 문자체계였지 구두어에 기반을 둔 문자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구두어의 ‘소리’가 아니라 기존 어휘의 ‘독음’ 표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자모를 통한 성조 표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의식적으로 새로운 ‘문자’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의 독음을 표기하는 ‘부호’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법이 갖고 있는 더 큰 문제점은 표음자모와 동일한 계열의 자모로 성조를 표기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의 성조를 단일한 자모가 아니라 자모의 배열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자모로 표기한다는 데 있었다. 이는 단지 성조 표기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모의 표기가 성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운모의 표기 형식이 성조에 따라 각종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음의 인식과 쓰기에 커다란 불편함을 가져왔다.”<sup>32)</sup>는 데 있었다. 이는 언문이 불일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현대판 문언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표음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문맹 대중들뿐만 아니라 한자에 익숙한 이들마저도 익히기 어려운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보급과 활용에도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어표음문자 체계 속에 성조를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조를 직접 한어의 서사체계에 반영하지 않고 사전과 사전에만 발음부호의 형태로 병기해주는 방법을 채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조를 직접 서사체계에 반영하더라도 사성 모두를 각기 서로 다른 자모 변환규칙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일관된 방법으로 특정 성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도 있었다.<sup>33)</sup>

32) 王理嘉, 《漢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 語文出版社, 2003, 43쪽.

33) 예를 들어 王力은 1938년 《漢字改革》에서 성조부호는 “사전에만 정확하게 표기하고, 문자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전에 표기할 성조부호는 부호를 붙이지 않는 기본형식으로 陰平을, q를 붙여서 陽平을, v를 붙여서 上聲을, x를 붙여서 去聲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王力, 《漢字改革》, 《王力文集》, 第七卷, 山東教育出版社, 1990, 369쪽 참조.

## 2) 표준어음을 둘러싼 논란

국어 로마자 방안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표준어음의 확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은 방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주음자모 방안에서 채용했던 탁음 성모를 남겨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언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북경음'을 국음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점과 그것에 기초하여 '국음'을 통일시켜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절대 다수의 방언 사용자들과 문맹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소위 '국음'은 방언과 어음의 편차가 심한 당시 중국의 객관적인 언어현실을 고려할 때 절대 다수의 언중들에게는 외국어처럼 어색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르치기도, 보급하기도, 배우기도, 습득하기도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각국의 국어는 확실히 대부분 하나의 방언을 기초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기타 여러 가지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음에 있어서나 문법의 변화에 있어서나 모두 이러한 영향의 흔적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淸朝 수 백 년 동안 백화는 확실히 북경어를 관화로 삼았지만 문학 언어는 오히려 매우 혼돈스러운 소위 江南語의 독음을 官音으로 삼았다. 文章詩詞에서의 平上去入과 押韻은 모두 江南音을 표준으로 삼았다. 현재 북경은 정치 중심의 자격마저 잃어버렸다. 최근 30년 동안 새로운 연구와 학술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공상업의 발전 과정에서의 기술 분야의 언어, 그리고 정치나 사회교류에서의 언어는 사실상 대부분 '남방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중략) 동시에 남방에는 역사가 오래된 중심 도시가 없는 관계로 다들 북경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藍靑官話'가 사실상의 공통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대학의 경우라도 교수와 학생들 중 90% 이상은 이 '藍靑官話'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북경 이외의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각 영역에서 진정한 북경말을 할 줄 아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방언의 일부분만 희생시키고 이도저도 아닌 어색한 북경말을 배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북경의 독음과 어조에 따라 표음법을 만든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sup>34)</sup>

34) 〈羅馬字的中國文還是肉麻字中國文?〉, 228쪽

이 때문에 瞿秋白은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언문을 사용하고, 전국적인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는 전국적 공통어를 사용해 나가면서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sup>35)</sup>

국어로마자 방안이 ‘북경음’을 국음의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통일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국어’ 기획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어’ 기획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던 곳의 방언에 표준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방언들을 이에 맞춰 동화시켜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중국에서 이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북경어였다. 때문에 국어로마자 방안이 ‘북경음’에 ‘표준’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권 언어로서의 ‘국어’가 아니라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공통어’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이 진정으로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표음문자 체계를 지향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절대 다수의 방언 사용자들과 문맹자들이 자신들의 구두음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 즉 로마자모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부호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방언 어음에 기초한 별도의 표음방안을 제정하여 방언 사용자들과 문맹자들이 자신의 구두어를 서사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 후에, 대표 방언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점진적으로 공통분모를 늘려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벽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공통어를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어로마자 방안은 절대 다수의 방언 사용자들과 문맹자들의 구두음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북경음’을 국음의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제도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다수의 언중들에게 보급되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 3)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

국어로마자 방안은 한자를 소리를 나타내는 독음부호가 아니라 한자를 대체할 문자체계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주요 인물들의 관련 문장에서도

35) 拙稿,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中國文學研究》第39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9. 12. 93쪽 참조.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는 몇몇 사람의 구상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닌 기존의 한자를 새로운 국어로마자라 대체하고, 그것을 공식 문자체계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적용과 실천 과정,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지원이 필요했다.

당시 국어로마자 추진자들은 국어로마자가 한자를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吳雉暉는 천 년, 黎錦熙는 오백 년, 錢玄同은 백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었다.<sup>36)</sup> 이 때문에 이들은 한자의 폐해와 국어로마자 방안으로의 대체 필요성을 선전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과도기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어로마자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923년 吳雉暉, 黎錦熙, 錢玄同 등은 국어로마자 방안 창안의 출발점이 된 〈請組織‘國語羅馬字委員會’案〉을 국어통일주비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주음자모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로마자모를 겸용할 것과 로마자모를 국음자모(주음자모)의 제2식(別體)로 삼을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마자모 표음방안을 추가하려는 이유로 타자와 인쇄, 중국 인명과 지명의 외래어 표기 통일, 외국 단어의 직접 표기, 글쓰기 등에서 각종 편리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의 정체성, 부호가 아닌 문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애초부터 모호해 질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1928년 《大學院公布〈國語羅馬字拼音法式〉令》에 따른 국어로마자 방안의 공식적인 용도도 ‘國音字母’ 第二式이었다.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중국어문의 보조적 역할과 한자의 독음이나 번역어를 표기하는 기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한편 사회적 무관심과 정부의 비협조는 이러한 ‘國音字母’ 第二식의 위상마저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했다.

국어로마자의 신세는 험난하기만 했다. 출생은 마치 ‘사생아’(스스로 발표) 같았으며, 억지로 첩(제2식)을 맡겠다고 공포했으며, 끝내 초등학교에 보급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사회에서의 시행도 매우 어려웠다.<sup>37)</sup>

36) 黎錦熙, 《國語運動史綱》, 商務印書館, 1934, 188쪽 참조.

국어로마자 방안이 공포된 지 3개월 만에 ‘北京大學’을 ‘北平大學’으로 개명하면서 교육부가 ‘北平’을 郵政式 표기인 Peiping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錢玄同, 黎錦熙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국정 표기법에 따라 Beeipyng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국어로마자표음 표준양식은 전국 최고 교육기관이 공포한 것으로 이미 국가가 정한 정식 표음법이 되었다. 공포 이후 한자의 음역은 모두 이를 표준으로 삼아야 했다. 더욱이 국가기관은 더욱 이를 어기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로마자표음의 통일에서 국어통일주비회는 유일하게 지도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예전의 번역은 본회를 통해 개정되어야 하며, 이후의 새로운 번역은 본회를 통해 심의 확정되어야 한다. 北平이라는 단어를 보면 국가가 정한 정식 표음법에 따르면 ‘Beeipyng’으로 써야 한다.(……중략) 지금 정부의 최고 교육행정기관이 대학원이 공포한 우수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이 사적으로 만든 미흡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sup>38)</sup>

하지만 이들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이처럼 국음자모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고 교육행정기관마저 외면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의 범주를 뛰어넘어 대중들에게 수용되지 못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조차도 보급되지 못했다. 결국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국음자모’ 제2식이라는 명칭마저 ‘譯音符號’로 바뀌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역할도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 Ⅲ. 나오는 글

국어로마자 방안은 5·4 신문화운동 시기 새로운 언어관을 토대로 추진된 문체개혁운동과 문자개혁운동, 그리고 에스페란토운동의 영향 아래 탄생했다. 그것은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 역사상 최초의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한자 대체방안으로

37) 周有光, 《漢字改革概論(第三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79. 43쪽.

38) 錢玄同, 黎錦熙, 〈抗議“北平”音譯違式致教育部長蔣夢麟書〉, 《錢玄同文集》第三卷, 295쪽.

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최초로 정부의 공인을 받은 로마자모 방안으로서 한어의 어음을 음소단위로 표기했다. 둘째, 자모변환식 성조표기법과 단어 이어쓰기 규칙 등을 통해 한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문자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셋째,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을 표준어음으로 확정함으로써 근대 '국어'의 표준성과 통일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넷째, 문자의 보편성과 응용성을 강화하여 근대 과학기술 영역의 필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응결체이자 매개체인 한자개혁을 통해 중국문화 전반의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국어로마자 방안은 여러 장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대체할 문자체계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나름의 이론적·역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조표기법과 방언의 편차가 심하고 문맹률이 높은 어문현실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표준어음선정과 국어통일방안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한자개혁과 표음문자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두음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서사할 수 있는 문자체계를 희망하던 대중들에게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의식적으로는 한자를 대체할 문자체계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호했던 국어로마자 의 역할과 국음자모로서의 공식적인 위상조차 부정하는 정부 기관의 비협조 때문이었다. 어문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어내적인 완결성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언어외적인 여건의 성숙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특히 그것이 '국어' 정책인 경우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기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마저 외면했기 때문에 애초의 의지와는 달리 한자의 독음이나 번역어를 표기하는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표음문자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변별성으로 의미의 변별성을 구현한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 구두어의 어음과 어휘, 언어구조에 최대한 근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객관적인 어문환경은 지역별 방언의 편차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단음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표음문자로 대체할 수 없었다. 한자를 국어로마자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음 통일과 문체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최소한 동일한 방언구역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어음을 통일하고, 여전히 단음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언체 문장구조와 어휘구조를 백화체로 개혁하는 작업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표음문자로 작성된 문장의 해독에는 개별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열하는 문법체계와 문장규칙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어로마자로서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법체계와 다양한 문장규칙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의 한어사적 의미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한걸음 물러나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이 진정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체계였는지 아니면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또 다른 방안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당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나 보급 정도보다는 독자적인 문자로서 얼마나 완전한 체계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것이 이후에 등장한 한어표음방안에 어떤 이론적·경험적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어로마자 방안은 종래의 방안들보다 훨씬 보편적인 문자관을 구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엄격한 표음규칙과 규범들에 기초한 완전한 문자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의 적절한 정책 지원, 어문개혁론자들 간의 생산적인 토론과 자발적인 수정·보완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한자를 대신할 표음문자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또한 한어표음방안의 주류를 한자필획식에서 로마자모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자개혁과 한어표음자모의 확립에 필요한 이론적 체계와 경험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국어로마자 방안은 비록 당대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했지만 그것이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黎錦熙, 《國語運動史綱》, 上海, 商務印書館, 1934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二編 52,

- 上海, 上海書店, 1989
- 周有光, 《漢字改革概論(第三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79
- 王力, 《漢字改革》, 《王力文集》, 第七卷, 山東教育出版社, 1990
- 高天如, 《中國現代語言計劃的理論和實踐》, 復旦大學出版社, 1993
- 王理嘉, 《漢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 語文出版社, 2003
- 倉石武四郎 著, 金鍾五 譯, 《漢字的運命》, 正音社, 1974
- 錢玄同, 〈中國今後之文字問題〉, 《錢玄同文集》第一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吳雉暉, 〈補救中國文字之方法若何〉, 《新青年》第5卷 第5號(影印本), 上海書店, 1988
- 傅斯年, 〈漢語改用拼音文字的初步談〉, 《新潮》第1卷 第3期(影印本), 上海書店, 1986
- 錢玄同, 〈漢字革命〉, 《錢玄同文集》第三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錢玄同, 〈注音字母與現代國音〉, 《錢玄同文集》第三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錢玄同, 黎錦熙, 〈抗議“北平”音譯違式致教育部長蔣夢麟書〉, 《錢玄同文集》第三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黎錦熙, 〈漢字革命軍前進的一條大路〉, 《黎錦熙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2004
- 趙元任, 〈國語羅馬字的研究〉, 《趙元任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2004
- 蔡元培, 〈漢字改革說〉, 中國蔡元培研究會編, 《蔡元培全集·第4卷》, 浙江教育出版社, 1997
- 瞿秋白, 〈羅馬字的中國文還是肉麻字中國文?〉,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拙稿, 〈錢玄同의 한자폐지론과 ‘국어로마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35輯, 韓國中文學會, 2007. 12
- 拙稿, 〈신문화운동시기 언어문자 개혁론과 ‘Esperanto’〉, 《中國文學研究》第37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8. 12
- 拙稿,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中國文學研究》第39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9. 12

### 【中文提要】

“國語羅馬字”方案是在“五四”新文化運動時期, 近代的語言觀的基礎上進行的文體變革運動、文字改革運動和世界語運動的影響下誕生的。它是作為近代的

中國의 語文改革運動史上第一次出現的集體的、自覺的漢字改革方案具有很大的歷史意義。它不但體現着比以前的漢字改革方案更普遍的文字觀，而且具備着按照嚴格的拼音規則和規範制作的比較完整的文字體系。因此，如果它可以獲得政府機構的支援、語文改革論者之間的活潑的討論機會，能夠通過修正・補完發展到可以替代漢字的拼音文字方案。除此之外，它把以漢字筆劃式爲主流的漢語拼音方案轉化成羅馬字母式，提高了近代中國語文改革運動的水平，而且提供了未來的漢字改革計劃和漢語拼音字母的建立上必要的理論體系和經驗基礎。因此，雖然“國語羅馬字”方案不能廣大的普及，社會的影響也很有限制，可是它在近代中國的語文改革運動史上，具有很重要的歷史的價值和意義。

### 【主題語】

國語羅馬字, 文字改革, 世界語, 聲調, 標準語

National Language Romanization, character revolution, Esperanto, tones of Chinese characters, standard language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